

기
행

로동당의 블은 당기아래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새 거리, 새 마을들

전 화 위 복 의 특 대 사 변 이 수 놓 아 진 북 변 천 리 를 따 라 (1)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조국의 북면땅에 눈이 내린다.
역사에 끄제없던 자연의 평판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축하의 꽃보라인 양산과 둘에 흰눈이 소복이 내려 쌓인다.

풀서리치는 대재난의 흔적이 가엾없이 사라진 땅에 후후죽순처럼 솟아난 사회주의선경자리, 선경마을들에 삶의 보금자리를 건설한 인민들의 가슴더질듯한 환희와 경성, 눈부십파 목메임이 그대로 로동당만세소리가 되어 부면의 방향곡으로 메아리쳐

역사의 땅에 일어난 천지개벽

예로부터 산이 무성하여 무산이라 불리는 이 나라 북면의 무산군,

그 옛날 정배살이 고장이자 사립 못살 곳으로 불리우던 이곳이 우리 인민들속에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던 때가 창조의 선경이 되어 솟아난 땅, 수난자들이 앙족의 질병에 흘러온 거친 현실을 전하고 싶어 우리는 기행길에 올랐다.

한국인은 또 한글이 글짜기길을 도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곳에도 마을이 있구 하는 생각이 깃들었고, 험준한 밤자위가 어려기 시작한 항일전의 그 나날부터였다.

민족비밀근자지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항일의 신성옹용 김정숙봉지의 반고의 항생사가 것들로 있는 혁명전적지들과 수대정의 구호문화들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항일전의 옛 전구가 오늘은 우리 당시 철전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불길 속에서 청계위복의 전적지로 번보되었다.

우리의 첫 기행길은 올에서 30여리 떨어진 독소리로 향하였다.

어머니 이수명님께서는 농작물의

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블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불을 아내고 행렬집을 놓으고 오르자 인민행렬집을 놓으고 모습이 어려와 눈시울이 끄러워 절을 굽힐 수 없다.

군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독소리지구에 새로 건설될 아랑한 단충살림집들 들어서니 조근함과 암운 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은 어머니의 품』, 『네 나라 제일로 좋은』의 서예작품을 걸려있는 살림방들에는 신뜻한 짜개가 끌려있고 구색이 맞는 농민들이 일꾼거리는 부엌에서는 장작불이 타락 뛰는 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살고 있는 고마운 당의 품, 자본주의가 흉내낸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혼례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라는 것을.

이곳을 떠난 위세차가 무산군으로 돌아서는 동행한 할 군이

작황도 품소 료제 하시며 우리 신人们对들이 나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느라니 한명생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불을 아내고 행렬집을 놓으고 오르자 인민행렬집을 놓으고 모습이 어려와 눈시울이 끄러워 절을 굽힐 수 없다.

군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독소리지구에 새로 건설될 아랑한 단충살림집들 들어서니 조근함과 암운 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은 어머니의 품』, 『네 나라 제일로 좋은』의 서예작품을 걸려있는 살림방들에는 신뜻한 짜개가 끌려있고 구색이 맞는 농민들이 일꾼거리는 부엌에서는 장작불이 타락 뛰는 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살고 있는 고마운 당의 품, 자본주의가 흉내낸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혼례로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라는 것을.

이곳을 떠난 위세차가 무산군으로 돌아서는 동행한 할 군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읊지구에 수십동의 5층살림집들이 두단강을 따라 늘어나니 분유치원건물이 득특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의 한복판에 내세워 둘 손색없이 티색있는 청형전 물의 내외부에는 축구공과 학습장, 해바리기, 자동차 등 아들의 풍물에 맞게 그림창식들이 형상화되었었다. 과연형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니 사방으로 놓인 창가마다에 선 어머니당의 사랑인 양 1 2 월의 배씨이 따스히 빠져들고 힘찬마을의 정경이 한눈에 알게 되었다. 낮잠한 간지리 아득한 잠자리에 든 아이들의 구렁살 없는 얼굴을 바라볼수록 행복의 보금자리에 병사의

재가 창조된 이 나날에 북면땅의

인민들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위력과 우리 사회의 참된 생활률리, 조선의 승리는 파악이라는 철의 진리를 가슴뿌듯이 느꼈다.

40일과 5일

북면땅의 인민들은 오늘 누구나 할것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민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

신과 단승과의 정신, 결사판결

과 성신이 어려 어떤것인지 혹

특히 알게 되었다고...

함경북도 연사군률격대가 연

사율을 구소탁아소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기초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4 0 여일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난관으로 하여 공사는

더더기 진척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만은 살림집과

연변수호안봉사를 땅에서 정해

준 기일안에, 당시에 요구하는

높이에서 알당과 끝난 조선인민

군 퇴영회소속부대 장병들이 이

들의 보금자리를 달려왔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백일전

을 벌려온 군인들의 두생모습

을 시다.』

이번 각오로 만장약원 부대의 정병들이 기뻐 연사령을 떠나기 전까지의 불과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2층총각공사와 지붕공사, 외내부미장공사와 외장재배로 기록을 전부 걸주하게 되었다.

그때 끌어보며 군당위원회 일군인 김길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단승에의 정신을 우리는 이번에 교파서나 빙이 아니라 실지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 당에서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 투쟁 본래로 삶의 일할것을 요구하는지 더 철실히 느끼게 되었으니다.』

두 부 이 야 기

지난 10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장병들이 일하는 무산군을 소중살립집공사장으로 삼봉초금증학교 2학년에 다니는 남지향, 조운별학생을 비롯한 여러명의 학생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무엇인가 소박한 성의를 바치고 싶은 자식들의 소원을 헤아

려 부모들이 마련해 준 두부를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끌려온 어린 학생들은 데려들려고 노력하는 정치일꾼에게 무작정 떼를 썼다. 말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이었다.

『안일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면 너희들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 될수 있지 않나?』

군관 안정남동무의 말에 아이

들이 활짝 웃어버렸다.

『우리야 인민사수전, 인민복

무전의 제 1 선명사들이 아닙니까. 군인의 힘으로 하루빨리 아

이들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었

다.

식사하며 오가는 시간마저 커

증해 공사장에서 주막발으로 아

침식사를 하며 일하는 군데에

바, 험준들의 모습은 경에 하는

높이에서 알당과 끝난 조선인민

군 퇴영회소속부대 장병들이 이

들의 보금자리를 달려왔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백일전

을 벌려온 군인들의 두생모습

을 달려있었다.

북면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3)

어머니당의 사랑 꽂이 없어라



뜨거운 사랑 날과 날을 이어



총 량의 이 어려



북면땅 아이들이 종교원에서



체육통예호의 통산집



